

전반적 오름세 경향 물동량은 부진

생산농민 소득효과 없는 '거품성' 수입약재 반입 구실만

한여름 같은 불경기가 계속되는 약전골목의 겨울 풍경에서는 번잡하고 북적했던 한약상가의 옛 영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산 한약재 시세도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실제 물동량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산 생산량이 부족해 물량이 귀한 탓도 있지만 값싼 수입산에 밀려 상대적으로 가격격차가 심한 국산약재가 소비자들로 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중 하나다.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식품용 수입약재 반입으로 생약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으며 재배면적과 생산량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국산 물량 감소로 시세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식품용 수입약재 반입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국산약재 폭등세가 실제 물동량과는 무관한 거품일뿐 아니라 오히려 수입을 부추기는 악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산약재의 전반적인 시세회복 내지는 시세폭등 현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 움직여지는 국산 물동량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생산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효과도 가져다 주지 못한 거품성이면서 오히려 수입약재의 무분별한 반입 명분만을 내주는 구실로 악용되고 있는 것.

지난해 특히 식품용 반입량이 많았던 구기자, 백작약, 오미자, 산수유 등은 품귀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세는 주춤한 상황이며 이달중으로 당귀, 천궁등 수입약재가 식품으로 대량 반입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이들 시세도 다소 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기자 12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청양산이 1만6천5백~1만7천원선. 12월초 청양산지에서조차 1만7천5백원선에 거래되던 것이 월말들어 다소 하락세. 진도산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근당 2만원대까지 형

성됐으나 물량 구하기가 어렵다. 식품용으로 반입된 수입구기자 영향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닥시세조차 워낙 높게 형성돼 있어 국산 구기자 거래 물동량은 부진한 편이다.

당귀 햇것이 수확돼 나오면서 시세가 다소 하락세. 지난 11월 근당(6백g 기준) 5천원선이던 토당귀 통자 시세가 4천5백원 선으로, 6천원 선이던 토당귀 절시세가 5천5백원 선으로 소폭 내림세 경향을 띄고 있다. 거기다 최근에는 식품용 수입당귀가 국내 반입돼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당귀시세는 다소 빠질것이란 전망. 황기 종자값에는 비할바 못되지만 당귀 종자값도 강세. 산당귀 종자가 2kg 기준 40~50만원 수준에 산지거래되고 있다.

방풍 원방풍(해방풍)은 물량이 귀해 근당(6백g 기준) 1만1천원에도 품귀. 이에 반해 수입 원방풍은 근당 1천6백원선으로 큰 시세차를 보이고 있다. 식방풍은 근당 4천4백원 선으로 지난 11월 4천7백원대 시세보다 다소 하락세. 수입산 원방풍의 시중유통 영향 때문인듯.

백하수오 지난해 생산과잉으로 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올 하수오 재배면적이 급감. 생산량이 예년비 대폭 감소한 탓에 백하수오 시세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12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내에서 짝으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상품이 6천5백원 선에, 중품이 5천5백원 선으로 지난 11월보다 1천원 폭으로 오름세다. 이처럼 국산 물동량이 뜸한 틈을 타고 최근엔 수입 하수오가 식품으로 대량 반입 유통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종자까지 대량 반입돼 온다는 소문이다. 수입산 반입으로 인해 국산 하수오 시세에 당장의 큰 변화는 없겠지만 국산 하수오의 수요는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세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시호 햇것이 한창 출하돼 나올 시기임에도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물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근당(6백g 기준) 1만7천5백원 선으로 상보합세. 11월 시세 1만5천원 보다 2천5백원 폭으로 경증 올랐다. 산지에서조차 국산 시호물량 구하기가 쉽지 않아 시세는 당분간 상보합세 지속될 전망이다.

오미자 시세 오르긴 했으나 물량부족 현상에 비하면 오름세는 소폭. 식품용으로 반입된 수입 오미자 영향으로 국산 오미자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은편이라는 분석. 12월말 현재 거래되는 오미자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1만8천~1만9천원 선이다. 물동량과는 무관하게 국산 오미자 시세는 보합세 유지할 전망이다.

작약 12월말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경동약령시장내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의성산이 5천~5천5백원 선(상품), 3천5백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호남작약은 4천2,3백원 선으로 약보합세 유지하고 있다. 최근 3~4년 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작약 재배면적과 생산량 급감 상황에 비추어 볼때 정상적인 시장경제 논리에 의하면 기금쯤 시세가 6천원대는 형성돼야 함에도 식품으로 대량 반입된 수입작약 영향으로 국산 작약의 시세회복은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는 상

황이다. 시장상인들 말에 따르면 식품으로 반입된 수입작약은 지난1년만해도 몇 백톤에 이를것이란 귀뜸.

지황 햇것 출하가 진행중이지만 지황 역시 생산량이 많지 않아 품귀다. 생지황도 귀해서 예년 7~8백원 수준이던 근당(6백g 기준) 시세가 지금은 2천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 12월말 현재 거래되는 근당 도매시세는 상품이 9천원선, 중품이 7천5백원 선, 하품도 6천5백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보합세 이룰 전망이다.

천궁 토천궁은 지방산지에서조차 물량구하기가 어려울 만큼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시세도 상승세를 유지 12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9천5백원 선(절)로 지난 11월 시세보다 1천원 폭 상승. 일천궁도 올 생산량 감소로 상보합세 경향을 띄고 있으며 12월말 현재 근당 6천5백원 선(절)에 도매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국산 천궁 품귀와 시세폭등에 힘입어 이달중으로 중국산 천궁이 식품으로 대량 반입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국산 천궁 상승세는 당분간 주춤하거나 다소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치자 생산원가 이하의 시세폭락으로 최근 2~3년 사이 치자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 올 생산량도 예년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12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1천6백원 선으로 지난해 이맘때 시세보다 약2배 가까이 올랐다. 시세는 당분간 보합세 이룰 전망이다. 최근 정부의 수급조절품목 단계적 축소조정안 논의과정에서 치자가 개방대상 품목으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국산 치자 생산기반 조성은 이제 물건너 간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황기 햇것 출하가 마무리 되는 시기임에도 시세는 1년근 소황기기가 근당(6백g 기준) 9천원 선으로 상보합세 유지하고 있다. 올 황기 수확량이 예년비 크게 감소한 틈을 타고 수입황기가 식품으로 대량 반입돼와 유통되는 바람에 상보합세 이루고 있긴 하나 국산 황기 실제 물동량은 다소 부진한편. 3년근 중황기는 근당 2만5천원, 6년근 대황기는 근당 3만7천원선으로 역시 상보합세 이루고 있다. 황기시세의 이같은 상보합세 영향으로 황기 종자값도 폭등 1가마에 7백만원선으로 2백만원 수준이던 예년비 무려 3배나 경증 뛰었다. 산지에서조차 황기 종자 구하기가 쉽지 않아 일부 장사꾼들 사이에서는 중국 황기 씨앗수입을 추진하는 등 발빠른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향부자 생산량 대폭 감소 영향으로 물동량이 많지 않다. 시세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12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2천7백원선. 지난 11월 시세보다 4백원 폭 상승. 물량이 워낙 충분치 않은 탓에 국산 향부자 시세는 앞으로 3천원 선까지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여름 수해영향으로 향부자 색깔이 거무튀튀하고 알이 작아 재고보다 오히려 햇것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이다.

황금 햇것 출하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나 시세는 여전히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다. 12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내에서 거래도매시세는 근당(6백g 기준) 1만5천원선으로 지난 11월보다 1천원 폭으로 상승. 이같은 황금값 폭등세에 힘입어 최근 약2만5천원 정도의 수입산 황금이 식품으로 반입돼와 산지인 순천으로 내려갔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문정희>